



Global Partners USA, INC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 714.774.9191 Fax. 714.774.9192

E-Mail: admin@gpusa.org yoonsnews@protonmail.com Homepage: www.gpusa.org

겨울이 혹독할 수록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님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가깝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봄인지요. 님도 약속대로 꼭 다시 오실테지요.

4 월 창가에 앉으면 제법 멀리 응시해야 끝이 닿을 녹색 평야가 펼쳐집니다.

아침마다 하늘 반 녹색 반으로 채색된 화폭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 앞의 나뭇잎이 춤추면 그림이 아니었구나 혼자 봄날 미소를 짓지요.

만개한 봄에 맘이 설레면 겨울과 싸웠던 가혹함의 흔적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위로와 평안이 잠시 찾아옵니다.

왜 봄에만 그럴까 생각해보니
창가 호두나무가 겨우내 잎을 떨구었기 때문입니다.

양상한 가지.
그리고 보니 봄에 얻는 위로와 평안은 겨울이 선사한 선물이네요.

세상이 지어진 그대로라면 버릴 것 하나 없겠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각자 수업에 들어가니 개인적으로 마주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서 그게 많이 서운했습니다. 간혹 과자 쪼가리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 하나씩 나눠주지만 흡족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걸 해주고 싶은데... 몇 주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손쉽게" 할 줄 아는 grill cheese sandwich 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났습니다. 약 50 인분 이상을 준비하면서도 그게 그리 "손쉽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살림을 해보지 않은 티가 난 거죠. 저만 몰랐습니다. 선생님들과 아내는 전쟁 치를 각오를 한 듯했습니다. 그릴치즈샌드위치만 달랑 줄 수는 없고 과일과 과자와 빵, 음료, 전통 음식 스몰릿 등등... 그릇도 충분히 사다 놓고, 전날 필요한 장을 보고, 값을 고려해서 싱글치즈 대신 블럭치즈를 사서 강판에 갈아 냉동에 보관하고, 과일도 씻고 자르고. 당일날 프라잉 팬 두개에 한 명씩 붙어서 버터를 녹이고 빵을 올리고 위에 치즈를 올리고 잽싸게 돌리는 그 미끄럽고 번거로운 일들을 무한 반복하며, 손과 기름이 혼연일체되는 어수선한 과정을 통해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 경험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그냥' 하자고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여자들은 거기에 수반되는 전혀 '손쉽지 않은' 일들을 다 꿰뚫고 있는 능력자 같습니다.





식후 센터 뜰 안에 배구공 두개 던져놓으니 또 신나는 소풍이 되네요. 배드민턴, 배구공, 축구공 각자 취향대로 모여서 한바탕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솔직히 모르니까 쉽게 하자고 했지만, 하고 나니 즐거워하는 아이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젠 이게 큰일이란 걸 알았고..., 앞으로도 “쉽게”를 포기하지 않고 더 맛난 것으로 주고 싶습니다.

저희 교실이 3 개가 있고 방 하나는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몰려와서 제일 어린 아이들은 사무실을 교실로 사용합니다. 이젠 사무실이 따로 없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도 아이들이 모두 차지해서 시끌벅적한 곳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러 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쉼의 공간이 안 쉼의 공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1 학년 아이비케가 자주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벌써 몇 번을 그래서 물도 줘보고 머리도 짚어보지만 얼굴이 약간 발그스름하면서도 윤기없이 거칠어보이는 증상이 뭔지 알수가 없네요. 약을 함부로 줄 수도 없어 사무실에 갖다놓은 소파에 누워 쉬라고 하니까 함께 따라온 꼬마가 소파가 얼른 아이비케 옆에 비스듬히 누워 소파를 쓰다듬습니다. 두 꼬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거 보니 소파가 고급져보이나 봅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라길 기도합니다.

지난달 3 월 말엔 마을의 어느 아줌마가 우리가 크르스차이라면서 사람들과 학생들을 선동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보이콧했다는 걸 어느학생이 그런 이유로 더이상 공부하러 오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알게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여러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몇 아이들은 염려스런 표정으로 현지인 선생님에게 “선생님도 크르스차이나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어느 학부모는 저희를 찾아와서 우리가 무얼 가르치는지 수차례 묻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종교 관련된 교육은 하지 않는지 수차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그 아이들이 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크르스찬이기 때문에 아빠가 보내지 않을거라고 했답니다. (크르스찬 외국인이 어린이를 납치해 장기를 판다고 우리와 친한 아이가 아내를 안아주면서 귀뜸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마을 처음 왔을 때부터 잇을만하면 있어왔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소수있지만, 저희와 가깝게 지내는 아이들은 항상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 많이 흘러 누군가 우릴 크르스차이라며 모함(?)할 때 ‘그래서 뭐? 어찌라고?’ 속으로 말하는 아이들과 가정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기를 들추다가 메림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10/27/21 가정방문을 마치고 대문을 나서는 아내 뒤로 메림이 다가가 백허그를 해준다. 고맙다는 표현보단, 애정한다는, 가지 말라는 제스춰에 가까웠다.]

아무말 없이 그저 안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1 학년 부터 만났던 아이들이 벌써 아내 키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메림은 이제 7 학년이 되었고 원래 공부에도 관심은 없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린 시절이 아쉽고 어영부영 지나가 버리는 배움의 골든타임이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려는 세월을 백허그로 부등켜안아 세울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메림은 이 마을에 살지 않습니다. 메림을 돌보던 할머니가 몇달 전 돌아가시고 아무도 메림을 원하지 않아 멀리 지방 누군가에게 보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과의 헤어짐은 늘 이런식입니다. 바느질 공장 한 칸이 엄마의 일터이자 보금자리였던, 엄마와 단 둘이 살던 이슬람이 그랬고. 부모를 떠나 이모집에서 살던 아이슬루 자매들이 그랬고. 셋방과 컨테이너 집을 전전궁궁하던 어느 여름, 강통 집안의 무더위를 참지 못했는지, 아님 그보다 더 혹독한 이 마을에서의 삶이 버거웠는지 남쪽 고향으로 떠나버린 아씨야네 남매네가 그랬습니다. 오늘같이 기억을 더듬는 날은 기어코 가슴에 빈자리를 만들고 마네요. 작별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난 못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그 아이들을 방문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릴적 기억속에 잠시 머물렀던 이방인이지만, 만나서 지난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맛난 것도 먹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잠시 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졌습니다.

** 짧은 개인 근황 전합니다. 오랫동안 비염으로 호흡마저 불편했는데 최근 어떤 선생님께서 본인이 시술 받은 비중격 수술을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제게도 유효한 수술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수술이라면 좋은 의사선생님과 연결되어 코로 마음껏 호흡할 수 있도록 ㄱㄷ해주세요.

삼남매 엄마 이야기 (44)

이제 두달이면 이곳을 떠나야하는 택함이는 여전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택함이 대학진학과 주영이 서머스쿨 라이드 지원을 위해 미국서 여름을 보낼 예정입니다. 비시켈을 떠나면서 아이가 고립 될까 걱정했는데, 가끔 도시를 그리워하긴 하지만 여기로 이사오고 나서도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아이가 참 기특합니다. 농구시즌이 끝나자마자 배구팀을 만들어서 캡틴을 맡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비시켈에서 열린 배구대회에서도 우리 학교 아이들이



우승했습니다. 농구 유니폼과 같은 유니폼을 입은 학교도 우리 학교 뿐이고,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우리 학교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과 코치의 하나됨이 유니폼이나 체육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아이들 학교가 열리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다음해에도 이 학교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하던 이 곳 MK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학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 학교에는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엔 10 여명 공부하던 우리 센터에 요즘은 50 여명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합니다. 저는 5 학년부터 9 학년까지 고학년 아이들의 수학과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영어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처음 우리는 배치고사처럼 레벨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할까 함께 고민하며 영어와 수학 수업을 준비 했는데, 2 주가 지나면서 우리의 고민은 아무 소용없음을 깨달았습니다.

5 학년부터 9 학년까지 학생중에 영어 알파벳을 전부 다 아는 아이는 서너명 정도입니다. 그나마 하나도 모르는 애들은 따로 수업하고 나머지는 다같이 ESL 수업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5,6 학년반 수학 수업은 구구단을 다 외우는 애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2 단, 3 단, 4 단 차근차근 외워가고 있습니다. 아직 6 단을 패스한 학생이 없다는 건 아직 제가 수업 준비를 많이 안해도 된다는 소리지만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처음엔 '애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게 뭐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걸 알아야 하지 않나' 싶은 엄마마음 뿐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학교에 선생님 두 분이 안 오셔서 학교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아이들이 두시간 전에 센터에 왔습니다. 일찍 수업하자니까 절대 싫다고 말하면서 공들고 밖에서 놀지언정 교실로 들어올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수업이 일찍 끝났다고 집으로 가서 다시 안 나올 생각없고 여기와서 두시간 놀겠다고 생각한게 기특합니다.

엘리마 자매는 아빠가 오셔서 등록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부하고 싶을때, 다시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인것은 변할 수 없지만, 아이들은 안 오다가도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나니 한결 편합니다. 그 중에 수학도 제일 잘하고, 늦게 시작한 한국어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빠의 결정때문에 못 와서 괜히 미안합니다. 그래도 딸들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아빠가 있어서 걱정을 덜해도 되는지, 왜 이 종교는 여자화 아이들을 이리도 묶이게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다는 다윗의 고백에 저도 동참합니다.



기도해주세요

1. 이 마을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2. 오해의 시간들을 인내로 견디도록
3. 좋은 성품과 실력을 겸비한 영어 선생님을 만나도록
4. 재웅, 현순, 하람, 주영, 택함이에게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후원안내

<미주>

Check 를 GP 회사로 보낼 경우

Pay to : (GP USA) 그리고 Memo 란에 (K14, 평안, 회복)

GP 회사주소 :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Paypal 을 이용하실경우

www.Gpusa.org 에 방문하셔서 오른쪽 위 메뉴의 GIVE 버튼 클릭,

2 번 DONATE > 버튼 클릭 후 인포메이션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Selected M 은 “K14 화평, 회복”입니다.

GP 회사 Tel : 714-774-9191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KEB 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990-090820-517 (예금주 : 윤지오)